

특별기고



장덕철

(포천 노인전문병원 한방원장)

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에서 독자여러분께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아마도, 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던 말입니까? 하고 필자에게 되묻는 분도 계실 것이다. 필자의 대답은 '그렇습니다'이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이다. 그러면 또 물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집이 아닌 집이란 게 뭐요? 집이란 가장 먼저 <온도조절장치>이다.

눈보라치는 겨울에는 저체온증으로 죽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이고, 여름에는 열사병이나 탈수증으로 죽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이다. 필 그렇게 어렵게 말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이란 극단적인 온도의 변화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다. 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사람의 살갓에서 <털>이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집은 <사생활 보호장치>이다. 즉 다른 사람의 시야를 막아주는 장치이다.

집의 기능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에 해당한다. 집이 이런 기능까지 담당을 해주어야 하는 이유

집이란 무엇인가?

는 사람들은 무언가 떳떳치 못한 행위를 해야하는 통물이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그냥 내놓고 하는 행위도 사람들은 떳떳치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어서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說)이 있으나 확실한 정설은 없다. 평소엔 사람들은 집의 이러한 기능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벽과 지붕을 투명한 유리로 만든 집에서 살라하면 사람들은 불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요즘은 <온도 조절장치>의 기능보다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다.

다음에 집은 <집주인의 상징물>이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나는 이러한 사람이외다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보여주는, 집주인을 대신하는 물건이다. 즉 상징물이 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동차란 원래 먼 거리를 빨리 옮겨주는 바퀴 달린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티코와 에쿠우스의 주인들을 생각해 보라. 티코주인은 언젠가는 꼭 에쿠우스를 사야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번다. 티코가 뭐 어쩌서? 바퀴가 없나 운전대가 없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티코주인을 티코처럼 생각하고 에쿠우스 주인을 에쿠우스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눈빛과 말투가 틀리게 대우를 한다. 티코주인 앞에서는 사람들은 거만하게 굴지만 에쿠우스 주인에게는 깎듯하게 군다.

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사코 넓은 평수의 꼬부랑글썩의 상표를 붙인 <집재품>을 구입하려고 안달이 나지만 평생 뺏겨지게 고생해서도 그런 집에서 한 번 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집의 기능 중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다. 다음은 사람과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감정을 지닌 물건>이다.

우선 비바람 막고 다른 사람들 눈길을 막아주었으면 되었지 집에서 무슨 감정?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사람들은 집이라는 물건과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살아간다. 남자들이 여자를 꼬일 때 하는 말이 <분위기가 좋네>에서 커피 한잔 같이 하자고 한다. 이 때에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커피가 아니다. 분위기가 좋은 까페다. 여자의 마음을 그리고 운이 좋으면 몸까지 열게 만들어주는 것이 <분위기 좋은 까페>다. 이렇게 집이란 사람의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감정을 지닌 물건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집이다. 사실 집의 디자인이란 것은 사람의 기본을 좋게 만들기 위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재미있는 부분이다. 이래서 건축은, 집은, 그냥 덩어리가 아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연구해 볼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필자연락처 : 011-628-4214



일동농협 장학회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지역인재 유출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운용

일동농협 장학회(조합장 신영필)는 3월2일 일동고등학교 입학식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 6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보다 앞서 2월15일 일동중학교 졸업식에서는 일동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 4명에게도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일동농협 장학회는 일동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취지에서 2006년 장학회를 설립하고 임직원들이 봉급에서 적금별로 일정액을 각출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일동농협 직원장학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조성한 기금은 모두 1천400여만원이다.

이 장학회는 일동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우수한 일동출신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동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직됐다.

장학회는 일동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신입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4명과 2학년 3명, 3학년 3명 1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2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에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합산해 성적이 우수한 1학년 3명과 2학년 3명, 3학년 3명 등 9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일동농협 이기환 지도과장은 "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면서 "인재발굴을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떠나는 우수한 학생들을 일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65@paran.com

목회단상

올바른 가치관!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매우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거짓 같은 정의(正義), 정의 같은 거짓, 이 말바구니 속에서 인간은 갈들(葛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良心)의 법은 지금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시대나 참 진리(眞理)는 변하지 않는다.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辯護)해 달라고 했다. 링컨이 그 사람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이 사건은 당신이 잘못입니다. 나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쳤다. "변호사란 무엇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평생 먹을 돈을 주겠다고 해도 변호를 거절하겠습니까?"

링컨은 조용히 대답했다. "거절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먹을 것은 나의 아버지(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불의(不義)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다. 하나님께 선 사람의 용기의 선택이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다.

마태복음5장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문의) 031-532-2489

자유기고

거창 서울우유 공장 견학

낙농사업 발전을 위하여!

바쁜 손놀림으로 술안주 오이와 풋고추를 썰어 담고 묶은지에 옥삼겹살을 넣어 삶고 방울토마토를 씻어 통에 담아 부지런히 가산농협 앞으로 왔었다.

2월27일 아침, 가산면 낙농인과 주민 40여명과 함께 서울우유 제4공장 견학을 갔다.

차량과 점심식사는 서울우유에서 제공해 주고, 서울우유 이상만 이사님께서 풍설기 띄우기 가산 낙우회 이호인 회장님과 여성낙농 포천분회 이인애 고문님이 술을 잔조해주셔서 술대접을 하려고 소주를 찾으려 보니 소주를 신지 않아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던지 대전에서 술을 준비해 오신 분을 대접했다.

1시쯤에 도착하여 회사 구내 식당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고 공장 견학을 하였다. 이 곳은 친환경, 고효율 자동화



공장으로 최신 기계 설치와 전자로봇 시스템으로 사람 대신 로봇이 우유박스를 이동하는 것을 보여 최첨단기술에 감탄했다. 또한 청정우유공장으로 청결함과 깨끗함을 자랑하며 안내원은 목장에서 시유를 가져와서 우리가 마시는 우유와 유제품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서울우유제품과 컵을 선물로 받고 교육문화관광 양기연해설사의 거창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거창은 교육 문화도시로서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이 위치해 있으며 특산물로 사과가 맛

있고 퇴계 이황선생님의 영성마을에 나누하는 즐거움, 농사 짓는 즐거움, 고기 잡는 즐거움, 누에치는 즐거움을 뜻하는 정자 이름 사랑장과 큰 바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수승대 적수암으로 후부에 대한 말씀 심복행 선생님 사당과 주변의 깨끗한 계곡을 보여 다시 한번 꼭 오고 싶고 거창군에서 교육문화관광 단지로 홍보를 잘 하는 것을 보며 우리 포천시도 오시는 손님들이 좋은 추억으로 다시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우리 저녁식사로 남해 바다 삼천포에서 회와 매운탕을 먹으며 서울우유 공장 견학을 마친 해준 가산 낙우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소주 한잔을 들고 낙농 사업 발전을 기원하며 다함께 큰소리로 위하여...



이은미

주부명예지킴이

자유기고

핑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

지금 포천동 새마을협의회는 비상이다. 연중행사라고는 하나 예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녀 새마을 협의회가 불우이웃 돕기에 노력봉사, 나눔의 봉사, 동전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도했다. 각 기관, 상점 곳곳에 돼지 저금통을 100여개 갖다 놓았고, 신복 방앗간 정경연 협의회장은 2007년부터 1일 매출의 0.5%씩을 떼어서 돼지저금통에 넣고 있다.

개인적으로 1년 목표가 200만 원이고 현재 40만원 정도가 통장에 넣어 보관중인데 목표가 달성되면 관내 독거노인 연탄나누기에 동참하려고 사모님, 아드님과 함께 다소 도움이 된다면 하면서 싱글빙글이다.

새마을부녀회 김정숙 회장님과도 일에 대한 공감이 착착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만든 2천개를 직접 손수 만들어서 나누는다면 통장협의회가 주최한 한마당 잔치 율농이에 주민 700여명의 식사 무료



박혜자

주부명예지킴이 포천동회장



보육상담

독립세대인가? 분리세대인가?

Q 저는 40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많은 부채로 인하여 한 1년전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친권은 아이 이모에게 있고 양육은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 아빠는 현재 회사에 다니며 연봉은 약 2,8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상환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거주지도 없어 친구집에 함께 살고 있고 주시지는 이전에 살던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 유치원비가 많이 올라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됩니다. 전 약 120(세액전) 정도 받고 있고 아이 유치원비는 약 30만 원 정도 듭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액이 약 400정도 남아있으며 아이 아빠 부채는 금융권을 포함하여 약 8천(개인사채포함) 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저하고 아이하고 떨어져 있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만일 혜택

을 받고자하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어머니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서의 보육료 지원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육비지원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육료 지원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조사를 통해서 보육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조사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06.11.23)



인경준 중앙특수아카데미 원장 (031-534-0277)

**꽃배달 서비스**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태원2가14길 14-1 (이태원역 14번 출구)

문의: 011-758-9088

http://www.sunghafflower.co.kr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www.wellbeingcha.com**  
011-9750-1883

**온남보이차**

천연무공해식품 무량산다예종 원산지 식품 도소매

"자향다호회" 회원우대

연중무료시음 및 다도시연회

http://www.wellbeingcha.com